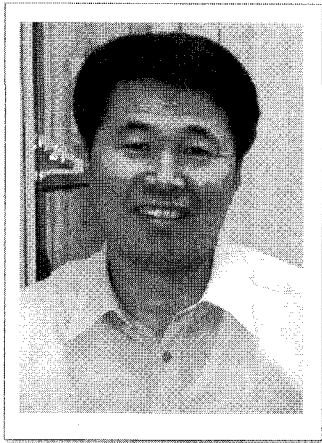


● 『발명하는 사람들』에 말한다

빨간 팬티와 흰색 구두, 그리고 다홍치마



김 병 오

한산중학교 교사
(ajukbo@hanmail.net)

TV에서 노란색 점퍼나 노란색 목도리를 본 적이 있는가? 선거를 앞두고 색깔에 대한 이미지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있다. 노란색을 두고 두 당이 서로 자기들의 고유색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런 색깔 싸움이 특히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 발명인의 입장에서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

그리고 발명하는 여러분은 소주를 담은 페트병이 무슨 색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무색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소주의 병은 녹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주를 담은 페트병을 녹색으로 바꿨더니 일본 업계에서 '녹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달라!' 라고 외치고 있고, 한국소주판매협회 측은 '아니다, 위스키나 포도주병에도 색깔이 있는데 소주병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라며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녹색으로 만든 페트병은 무색에 비해 재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이 신경전의 이유라고 한다.

발명하는 여러분은 과연 이 싸움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단순한 색깔의 변화만으로도 그 상품 부가가치의 앞뒷면을 가릴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온 것이 아닐까?

색깔에 관심을 가져보자!

개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디자인과 색깔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생산기술 평준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제품의 아름다움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디자인과 색깔은 자동차와 전자, 섬유, 패션 등 전체 산업분야에서 고객을 사로잡는 주요 척도가 됐다.

특히 물건의 색채는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옛 속담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즉 같은 조건이면 품질이 좋고, 쓸모 있는 것을 고른다는 말일 것이다. 본래 다홍치마는 첫 아이를 낳기 전의 새색시가 입는 옷이기도 하고, 새색시의 예복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이왕에 구입하게 된 경우 다목적이며 실용적인 것이 더 좋다는 데서 나온 말일 것이다. 우리가 '팬티는 흰색'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때 '빨간색 여성용 팬티'를 만들어낸 아이디어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어 '무지개색 팬티' 등 다양한 색깔의 팬티가 등장하게 되었다. 구두도 마찬가지. 구두는 검정색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흰색 구두를 만들게 되었고 이어 다양한 색깔의 구두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빨간색 팬티나 흰색 구두 등의 색깔을 혁신한 제품 개발들이 발명의 한 분야를 차지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색깔도 상품이다

소비자는 왕이다. 그러나 단순히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제품을 보는 순간 감동받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의 소비자들은 변덕스럽고 까다롭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은 이같은 '소비자의 변덕스러운 입맛 맞추기'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상품 자체보다는 그 이미지나 색깔로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포도주를 사는 경우 품격과 이미지는 물론이고, 아울러 색깔도 그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에 포함시킨다.

이제 발명하는 여러분도 색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색깔을 찾아내는 아이디어는 의외로 대박일 경우가 많다.

다음은 최근에 색깔변화만으로 우수한 발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례들이다.

줄넘기 속도에 따라 줄의 색깔이 변하는 '별빛 줄넘기'가 발명되었다. 줄넘기 줄을 특수한 광섬유로 만들어 줄넘기 속도에 따라 분홍, 파랑, 초록 등으로 변하고, 특정한 색을 지정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건전지를 넣어 사용하면 50회 점프할 때마다 피코리 멜로디가 울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한국기업인 임모씨가 수년전 특허법 조사차 특허법 도서관에 들렀다가 만나게 된 특허전문 변호사 마리안젤리씨와 함께 '색깔이 변하는 일회용 주사기 바늘'을 발명하여 공동으로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주사기 바늘은 인체에 주사되거나 혹은 혈액, 정액, 침 등 인체 분비물에 접촉된 후 다시 공기 중에 나오면 10초 이내에 최초의 투명한 흰색이 녹색이나 보라, 초록 등으로 변화하도록 만들어져 각종 질병, 특히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온도를 맞추는 것도 발명이다

어떤 상품이든 알맞은 온도가 있고, 그 상품을 최고로 만들어 주는 최적의 색깔이 있다. 발명가들이 애써서 만든 상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도 중요한 마케팅 발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른바 '온도 마케팅'이라는 이 신종 마케팅은 보다 고급화 되고 차별적인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업체들의 관측 마케팅이 맞아 떨어져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다. 이미 하이트 맥주는 90년대 중반 맥주 맛이 가장 좋은 7~8℃ 상태를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한 바 있다. 여기서 노하우를 얻은 이 회사는 자매 제품인 생수 '퓨리스'의 라벨에도 업계 최초로 온도계를 부착해 12℃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자헛은 지난해 9월부터 피자가 식어 고유의 맛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보온 밥솥과 같이 열선이 장착된 피자 배달 박스인 '핫박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피자는 75℃에서 40분 이상 유지할 때 가장 맛이 좋다고 한다. 이에 피자헛은 먼저 핫박스를 충전한 뒤 완성된 피자를 오븐에서 바로 옮겨 담아 소비자들에게 배달해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유아용품 업체 아가방은 올해 4월, 적당한 우유 온도를 알려주는 '큐빅 촉감 온도 젓병'을 출시했다. 이 젓병에 그려진 파란색 곰 무늬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적당한 수유 온도가 되면 흰색이 많이 섞인 하늘색으로 바뀐다. '리브 앤 케어'의 온도감지 곡선형 젓병도 젓병 앞면에 타원형 온도 감지시스템이 붙어 있어 적정 수유 온도를 알려준다. 온도감지 장치가 검은색이면 너무 차갑다는 표시이고, 알파벳 'H'자가 나타나면 너무 뜨겁다는 표시이며, 적정 온도 상태에서는 'OK' 표시가 나타난다.

최근에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담배를 보관하는 냉장 진열장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레중'이라는 이름의 담배는 차가운 온도에서 맛이 좋아 내부온도가 3~4℃, 습도 50~60% 상태에서 보관된 채로 판매되고 있다.

이제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이 품질은 물론이고 디자인이나 색깔을 기업의 최고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즉 단순한 외형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공학적 디자인과 색깔, 친환경적인 브랜드와 이미지가 모두 적용된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것이다.

발명하는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감추어 두었던 자신의 색깔을 표현할 때이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색깔도 찾아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명 아이디어

흡착기가 부착된 편리한 샤워기

이번엔 더하기 발명을 해보자. 발명의 기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더하기'이다. 글자 그대로 더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새로운 물건이 아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서로 더하면 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더하기 발명으로 성공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연필+지우개 = 지우개 달린 연필, 저고리+치마 = 원피스, 드라이버+전등 = 전등을 부착한 드라이버, 볼펜+전등 = 반디 라이트펜 등 의미 있는 물건과 방법을 서로 더하면 되는 아주 손쉬운 기법이다.

우리 가정의 목욕탕 샤워기 걸이대는 어른들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샤워를 할 때 샤워기를 손에 들어야 하고 물의 낭비도 심하게 된다. 또한 집안의 키가 다른 여러 식구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집안 식구 모두에게 만족한 샤워기 걸이대를 만들 수 없을까? 이것이 이번 만들기의 핵심이다.

■ 준비물

샤워기, 순간접착제 또는 예쁜 끈, 장갑, 흡착기, 칼 또는 가위

■ 만드는 과정

- ① 욕실 샤워기 몸통 부분의 나사를 풀어 분리한다.
- ② 샤워기의 어느 부분에 흡착기를 부착하면 좋을지를 생각하여 표시한다.
- ③ 흡착기 부착이 쉽지 않으므로 흡착기와 샤워기의 접촉부분에 약간의 홈을 만들어 접촉을 쉽게 한다.
- ④ 표시된 부분에 순간접착제를 사용하여 흡착기를 샤워기 표시된 부분에 부착한다(이때 순간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다른 곳, 특

- 히 흡착기의 접촉부분에 묻지 않도록 매우 조심한다).
- ⑤ 흡착기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는 보기 흉하지 않도록 취향에 따라 끈으로 묶어 마감처리를 하여도 좋다.
- ⑥ 흡착기가 부착된 샤워기를 욕실에 부착하여 실험하여 본다.



▲ 흡착기가 부착된 편리한 샤워기

이처럼 작은 발명도 가족들에게 물을 절약하는 교육을 체험케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편리하게 샤워하고 머리를 감을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린 것들을 누군가가 발명하여 발명가가 되고, 또 그것이 상품화되어 큰 돈까지 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하는 여러분은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직도 여러분의 주변에는 수많은 더하기 발명의 대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제공 : 한산중학교 김병오 교사